

Sulflex Ltd.

Subflex 외해가두리 한국 진출 눈앞

이스라엘 가두리 설치 업체인 Subflex 사가 최근 외해에서도 환경 영향을 적게 받는 외해가두리를 출시, 세계양식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Subflex 사가 지중해 지역 양식장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1 km 떨어진 외해에 설치한 Subflex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낮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한 해 동안 고급 돔류와 농어를 700 톤 가량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9 m에 달하는 파도를 견뎌냈다. 이스라엘 이수도드 근처에 설치한 시범용 외해가두리 양식장은 깊이가 50~70 m에 달하며, 1개 가두리 당 350 톤에 달하는 어류를 수송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어류가 자연 서식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로써 높은 용존산소농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해수 순환과 필수 미량원소의 이상적인 조합을 제공, 건강한 어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원 특허받은 고정장치를 사용해 연결하고 폴리에틸렌 파이프, 밧줄과 벨트는 모두 자체 제작해 시스템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두리 속으로 사료를 주입하는 공기 캐논을 설치, 어류가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Subflex 외해 가두리 시스템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양식어류 생산 - 자연친화적인 어류 서식지에서 양식됨

2) 혁신적인 공학 - 출원특허를 받아 시스템 제작기술 신뢰,

우수한 재료 사용

3) 악천후 견딤 - 폭풍을 피하기 위해 폭풍이 올 때마다 물 속에 잠김

4) 높은 성과 창출 - 높은 양식어류 성장률

Subflex 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WA2008 참여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세계양식산업의 비전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외해가두리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 11월 열리는 2008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외해가두리 산업이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Subflex 사의 국내시장 활약을 기대해 본다.

(상품구매, 대리점 개설문의: www.subflex.org, info@subflex.org)

김현경 기자

aquainfo@aquainfo.co.kr



Harvesting boat



Harvesting



Feeding vassal